

기획·연꽃세상

부처님오신날 특집



“진흠에 몸 맡겨도 청정자태”



“극락세계의 보련화(寶蓮華)에는 백천억개의 많은 꽃이 있고 그 일은 무량한 광명을 나타내며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한량 없는 부처님이 나타난다”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연꽃을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나타내는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삼대승론서》에서는 ‘연꽃에 네가지 덕이 있어 첫째 향기, 둘째 깨끗함, 셋째 부드럽고 연함, 넷째 사랑스러움이다. 저 법계 진여를 총괄하면 네 덕이 있고 상락아정에 비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화경》 ‘유물품’에서도 연꽃이 진흠탕 물속에서 나오듯 그 진흠탕에 팔리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에 오염되지 않음을 살하고 있다.

반쯤스러운 세상을 초탈한 성자이도 같다는 의미에서 연꽃은

다년생 초본식물 원산지 인도... ‘상락아정’ 비유

3천년된 씨앗서도 꽃피워 생명력 입증

함평 우포 늪지대·영암 백련사등 ‘연꽃 장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지리를 잡아 왔다. 인도 이집트 티베트 등을 비롯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 고르게 자생하고 있는 연꽃은 장수 건강 명예 영혼 군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불보살 비유 설화 다양

연꽃을 극락으로 삼고 있는 인도나 이집트를 비롯 연꽃이 자생하는 나라 대부분에서도 종교의 의 미로서 연꽃이 등장하는 설화가 많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권 나라에서 연꽃과 관련된 설화들을 듣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부처님께 연꽃을 바치는 것을 소중한 공양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극락세계를 연화세계라 하고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연화왕성, 연꽃 모양의 불좌를 연좌, 깨끗한 가사를 연화외, 법화경을 교법연화경, 연꽃 모양의 등을 연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교와 연꽃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불교건축이나 조각작품에서도 연꽃 문양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려 연등을 밝히는 것도 부처님의 무량

한 자비로 사바세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그만큼 연꽃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꽃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 받은 것이다. 연꽃은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인도다. 수련과 연으로 나뉘어 지는 데 불교에서는 수련보다 연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은 꽃과 잎 줄기 뿌리로 나뉘지며 잎은 땅속 줄기에서 나온다. 잎자루는 길고 물위로 올라오거나 물에 떠서 지른다. 잎의 지름은 40센

치 정도나 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잎자루와 뿌리줄기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꽃이 핀다. 꽃이 지고나면 10월에 별집 모양의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 있다. 씨앗의 강한 생명력은 40여 년전 일본에서 입증된 적이 있다. 1951년 일본에서는 3천여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단한 씨앗 3개를 발견, 53년에 토로의 박물관에 심었다. 3년 후인 56년 봄에 싹이 났는데 연이었으며

미) 연자 연실 연적 연옥 우자 우팔 우수 우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흰빛을 내는 백련은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연꽃은 각 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일컬어진다. 열매 속의 씨앗을 연방 연방 연자 연실로 부르며 연방 연방 연입등은 다. 1951년 일본에서는 3천여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단한 씨앗 3개를 발견, 53년에 토로의 박물관에 심었다. 3년 후인 56년 봄에 싹이 났는데 연이었으며

법 살생법 생대육종법등으로 번식되지만 주로 분주법에 의해 번식된다. 연꽃은 우리나라의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자생한다. 연꽃에 소규모로 피기도 하고 대단히 높지대에 피기도 한다. 뿌리가 식용으로 호랑 발기 때문에 대형 재배지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꽃을 심은 곳이 경북 상주지방이라 하나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꽃으로는 함평의 우포 늪지대(가시연꽃이 자생하는 유일한 늪)와 전남 무안의 일도, 영암 백련사 인근, 진주 덕진공원, 경북 경산지역, 경기도 양주리 일대등이 꼽

◇진흠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워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연꽃. 사진은 작가 이송인씨의 작품.

한다. 연근 농사의 경우 연근채취의 일이 힘들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신실 공원에서 연꽃의 조성은 필수적이기도 하다. 일도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10만여평 연꽃에 연을 번식시켜 연꽃 축제를 매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예술가들에게도 사랑

연꽃은 예술의 소재로도 오래 동안 사랑받고 있다. 목화를 치는 사람들이 연을 많이 그리고 시인들도 연꽃에 사랑을 즐겨 담았다. 특히 시각적으로 연꽃이 주는 이미지가 강해 사진예술가들의 포커스를 많이 받기도 한다. 불교계에서는 선암스님 동쪽 스님등 승려 작가와 이승만 이영 자씨등이 전국의 연꽃을 누비며 카메라에 연꽃을 담고 있다.

임연태 기자

식용·약재로 쓰이는 蓮

연꽃은 관상용 이외에도 식용과 약용으로 긴요하게 쓰여 왔으며 그 쓰임새는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 되고 있다. 식용으로는 연근이 가장 많이 쓰인다. 가을에 캐어 갖은 양념을 해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식이 가능하기도 한 연방은 꿀계 부수어 떡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잎과 열매로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건조하여 차로 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재로도

연근 건강식...떡·국수·차 재료

- 일-지혈제·야뇨증 치료
열매·씨-부인병에 효능
꽃-불면증·신장염·요통

애용되는데 잎은 알칼로이드와 타닌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렴(收斂) 활관의 오프라드는 현상이나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야뇨증을 치료 하는 데도 쓰인다. 연근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재로도

효능을 보인다. 연근은 강장제로 오래전부터 호평 받아 왔으며 열매와 씨는 부인병 치료에 좋은 효능을 보이기도 한다. 꽃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안면(安眠)을 주기도 한다. 이밖에도 폐렴 신장염 각혈 해열 건위 신경쇠약 입질 요통등 여러 병에 다른 약재와 함께 쓰인다.



◇연방이라고도 하는 연의 씨앗은 약이나 식용으로 요긴하게 쓰인다.

백련 가꾸기 수행삼는 인취사 해민스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백련의 모습을 돌보고 있는 해민스님.

“무언의 설법으로 번뇌를 녹여줍니다”

“백련은 연꽃중에서도 으뜸입니다. 고운빛과 짙은 향은 세속의 번뇌를 녹이는 무언의 설법이기도 합니다. 그 설법들을 듣기위해 백련을 기르는 겁니다.”

이산 인취사의 백련은 7년전부터 해민스님이 연꽃을 조성에 심으면서 해마다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백련에 관한도가 되었다’는 말을 받고 있는 스님은 백련을 심고 가꾸며 번식시켜 나눠 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스님은 절 입구의 5백평짜리 연못 외에도 2백평 규모의 연못을 새로 조성해 올해부터 연 모종을 심을 계획이다.

연 모종이 없지 않아 스님은 고우봉에 맞추리씩 육묘를 하여 안전하게 모종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절 주변에 고무통 수 백개를 묻어 조성한 모종함이 그대로 연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백련 낱은 비닐하우스도 설치해 흙을 곁게 채 넣고 연을 가꾸고 있다.

해마다 백련이 만개하는 7월 초순이면 사시에 그림 국악을 들기는 동호인들을 초대해 시사(詩詠)를 열어 흥을 돋구기도 한다.

스님이 연꽃을 조성한 것은 간송박물관 학예실장 최완수씨로부터 백련 밭을 분양 받은 인연에서 시작된다. 그 백련은 조선초기 학자이자 원예에 조예가 깊었던 김희안의 가문이 대대로 가꿔 온 연못에서 분재된 것이었다. 백련을 정성스레 가꾸면서 스님은 연꽃이 갖는 우주적인 오묘함에 놀라게 됐다. 그 오묘한 경치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 못한다’고.

“연꽃의 원산지인 인도에서는 백련을 특별히 생각 했습니다. 백련을 라지브라고 부르는데 신을 낳은 어머니란 뜻이지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백련을 바쳐 예의를 표현합니다.”

백련 응용차로 개발...매년 만개때 축제 열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 간다는 의미로 통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백련은 따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백련만도 10여종이 있는데 우리 절에는 길대 길이 붉은 빛을 띠는 것과 희다 못해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향이 좋련의 세배나 되는 백련을 응용 차로 개발 하는 것이 스님의 화두다. 여러차례 실험을 통해 스님은 백련꽃을 그대로 냉동건조하여 차로 우려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한송이로 30여잔의 차를 우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차보다 깊게 보급할 수 있을 겁니다. 건조시설과 포장시설을 갖추고 연을 농가에 보급해 꽃을 다시 사들이면 어렵지 않게 양산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거지요.”

스님은 올해 절에 백련을 연구할 연구실도 지어 연잎 엑기스를 개발 상품화 할 생각이다. 백련을 가꾸며 사진을 찍다보니 이제 스님은 펜만 한 작가보다 높은 안목으로 연을 렌즈에 담는다. 그간 찍은 사진만도 몇천의 작품집을 펴낼 만하다.

또 스님은 40여년간 추사의 서법을 사숙해 왔다. 매년 추사의 생일(음력 6월 3일)과 기일(음력 10월 10일)에는 다례를 올린다. 스님에게 서도를 배운 사람 가운데 국전에 특선한 사람도 있지만 스님은 한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 다만 평생의 원력불사로 《화엄경》 금사경을 하고 있다. 스님은 명주에 손질을 배웠던 탓에 독특한 바탕에 금분으로 《화엄경》을 사경하는데 20년을 잡고 하는 불사다. 완성되면 그 길이가 2키로미터가 넘는데 그 작품은 화엄대담을 세워 봉안할 계획이다.

이산=임연태 기자

Advertisement for Samsung EDO-DRAM. Features a futuristic cityscape background with a large 'EDO-DRAM' logo. Text includes '초고속 펜티엄활주호가 열렸다!' and '가격은 경제적으로 성능은 획기적으로- 멀티미디어 PC 최적의 성능을 위한 삼성 EDO-DRAM'.

Advertisement for Samsung EDO-DRAM. Includes a list of 4 benefits: 1. Low price, 2. High performance, 3. Easy installation, 4. High performance with cache. Includes a table of specifications for EDO-DRAM and Synchronous Cache SRAM.